



■부부의 대화

신혼부부인 한 여자가 산부인과에서 임신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임신 사실에 흥분된 여자는 집에 가는 길에 남편을 놀라게 해주려고 풍선을 몇 개 샀다.

집에 도착한 여자는 풍선에 '예쁜 아기임'이라고 쓰고 남편을 기다렸다. 퇴근 후 남편에게 풍선을 안겨주자 남편이 얼떨떨한 표정으로 여자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 모습을 보고 여자가 말했다.

"이 풍선에 쓰인 글을 읽고도 기분이 안 좋아?"

그러자 남편이 대답했다.

"당연히 기분은 좋지. 그런데 당신이 풍선을 세 개나 사 가지고 와서 걱정이 되는 걸."

■어떤 관계

신입 사원이 인사과에 인사카드를 작성해서 냈다.

비상시에 접촉할 사람의 이름을 써넣으라는 난

을 본 인사과 담당자가 폭소를 터트렸다. 신입사원은 그 난에 자기 여자친구의 이름을 써놓았다. 그리고 그 옆 '관계'를 묻는 난에 이렇게 써 놓았다.

"흔들리고 있음."

■남자의 묘안

한 남자가 아내와 미트에 장을 보러갔다. 중간에 아내를 잊어버린 남자가 눈에 띠는 미모의 여자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제가 이곳에서 아내를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잠깐만 저와 대화를 나누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여자가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왜 당신과 얘기를 나눠야 하는 거죠?"

그러자 남자가 말했다.

"왜냐하면 제가 예쁜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제 아내가 어디선지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기막힌 음식

스튜어디스가 승객에게 기내식을 전해주었다. 음식을 맛 본 승객이 인상을 찌푸리자 스튜어디스가 웃으며 농담을 건넸다.

"엄마 솜씨지요?"

그러자 남자가 대꾸했다.

"엄마 솜씨요? 아빠 솜씨보다도 못합니다."

■골프왕 친구들

오랫동안 함께 골프를 쳐온 80대의 친구가 있었다.

"이봐, 천국에서도 골프를 칠 수 있을까?"

"그럼, 당연히 칠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렇다면 말이야 누가 먼저 죽든지 먼저 사람이나 다시 와서 사설 여부를 알려주기로 하는거네."

얼마 후 한 노인이 죽었다. 그리고 며칠 후 먼저 죽은 노인의 유령이 찾아와 친구에게 말했다.

"이봐, 나야. 악속대로 천국에 대해 말해줘려고 았어."

반기운 얼굴로 친구가 물었다.

"그래? 정말 그곳에 골프장이 있던가?"

"당연하지. 그런데 말이야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네."

"좋은 소식은 뭐가?"

"응. 좋은 소식은 천국에서도 골프를 칠 수 있다는 거야. 넓은 페어웨이에 그린은 부드러워서 골프 치기애 더없이 좋다네!"

"그럼 나쁜 소식은 뭔가?"

"그게 말이세. 자네가 다음주 화요일에 티업이 잡혀있다는 거야."

■엄마의 미니스커트

화장한 휴일에 한 아이가 공원에서 울고 있었을 때 마침 옆을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보고 말했다.

"아가아, 여기서 왜 울고 있니?"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저런, 저런 이걸 어떡하니? 그러길래 엄마 치마를 꼭 붙잡고 다녀야지."

그러자 아이가 더 큰 소리로 울면서 말했다.

"손이 엄마 치마에 닿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오리입니까?

돈도 많고 잘난 사람... 황금오리

돈은 많이 없어도 항상 힘이 되고 보약 같은 사람... 유황오리

사람을 협박하고 욕하며 어디서나 미운티를 내는 사람... 탑관오리

그럼 언제 어디서나 잘 웃고 행복하는 사람... 앗싸가오리

리빙 센스

스모키 화장 - 와인색

■쌍꺼풀 있는 눈

1. 브라운이나 초콜릿 컬러를 눈 앞머리와 꼬리 부분에 살짝 바른 뒤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2. 검은색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눈 점막을 따라 진하게 그려준 다음 와인 컬러 색도를 쌍꺼풀 부분에 펴 바른다.

3. 눈매가 너무 짙어 보이지 않도록 블랙 펜슬 아이라이너로 언더라인을 그린 다음 브라운 색도를 발라준다.

■쌍꺼풀 없는 눈

1. 자칫 불거나 부어 보일 수 있으므로 브라운 색도로 눈 앞머리와 꼬리, 앞 아이를 부분까지 펴 바른다.

2. 와인 컬러 아이섀도를 눈 중앙 부분에 살짝 터치해준다. 너무 넓거나 높게 바르지 않도록 주의.

3. 블랙 펜슬 아이라이너로 라인을 두께감 있게 그린 다음 언더라인도 블랙 펜슬 아이라이너로 마무리한다.

시끌벅적 e-스타



제니퍼 로페즈 엉덩이 무려 1조원짜리 보험

보험 아줌마뿐만 아니라 흡수필에서도 보험을 판매하고 태아와 강아지도 보험을 드는 세상이다. 둘째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에서부터 자신만의 독특함을 보장받는 특별한 보험까지 종류도 다양한 보험의 세상.

'세상의 특이한 보험'을 끌어 놓는 동영상이 포털사이트 다음에 등장해 네티즌의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동영상에는 "이런 보험도?"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보험들이 등장한다.

가장 흔한 유형이 신체 보험이다. 색시한 엉덩이로 유명한 만능 엔터테이너 제니퍼 로페즈는 자신의 엉덩이에 1조원짜리 보험을 들어놓았다. 미남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의 팔·다리에는 65억원이 걸려있다. 가슴털이 85% 이상 빠졌을 때 보상을 받는 가슴털 보험, 개그맨 혁재가 가입한 것으로 유명하다.

크리스마스로 인한 폐해를 보상해주는 크리스마스 보험도 있다. 앉아있던 소파가 꺼졌을 때

요리가 폭발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독도 역사찾기 운동부분은 독도 보험에 들었다. 보험료는 1천여 만원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잃을 경우 47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은 만기 없는 보험보장기간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란다.

사람뿐만 아니라 애견들도 이제 보험에 들어 치료비와 장례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신적

인 상처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월드컵 축구 총격보험이 대표적이다. 지난 독일 월드컵

에서 영국의 한 축구팬은 잉글랜드가 기대 이상의 성적으로 탈락할 경우 받을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험에 기입해 화제가 되었다. 조건은 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학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 UFO 유괴 보험도 있다. 외계인에게 납치당했을 경우 110억원, 외계인에 의해 사망했을 경우 220억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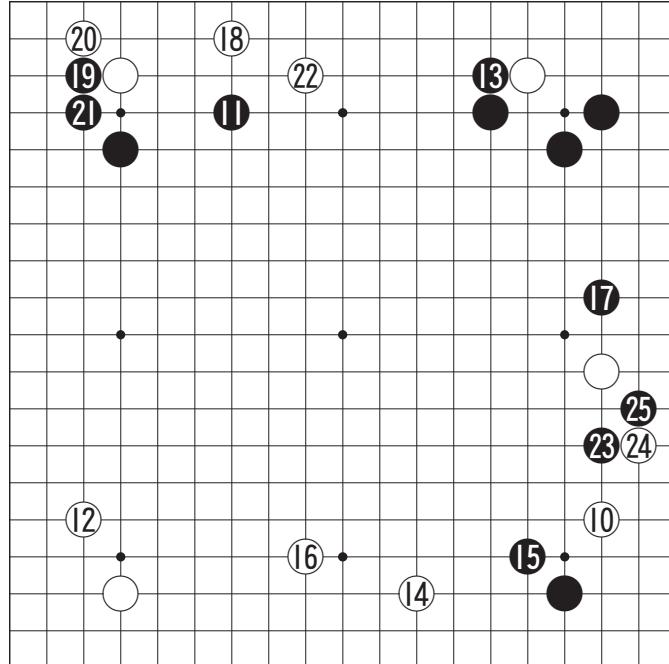
제89회 전국체전 바둑 대회

내 갈 길을 가련다

어린이부 결승 2보(10~25)

白 나태현 黑 현승민

(경기도) (제주도)



<참고도>

앞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5년동안 참가한 전국체전에서 제주도 선수가 메달권에 입상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런데 현승민군이 예상외로 숱한 강자들을 물리치고 파죽지세로 결승에 진출하자 제주도팀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결승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대만족이지만 되도록이면 금메달을 따주기로는 학수고대하는 분위기다.

백 10부터 두 대국자가 '내 갈 길을 가련다'식의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백 14, 16 때 혹은 '참고도'의 흑 1부터 5까지 지켜두는 것이 보통. 그러나 현승민군은 난전을 즐기는 듯 17로 협공하여 복잡한 길을 가지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RESORT/SISAN 웨스틴 리조트

굿모닝 잉글리쉬 <1183>

He'll understand.

그분은 이해해 주실 거야.

A : Have you told your Dad yet?

B : No, and I'm dreading it.

A : How should I tell him about the wreck? Just tell him the truth. He'll understand.

B : I hope so. I just don't want him to be disappointed in me.

A : 자네 아버님께 말씀드렸어?

B : 아니, 무척 걱정이 돼서.

A : 그 차 사고에 대해 내가 말씀드리면 어쩔까? 그냥 솔직히 말하라고. 이해해 주실 거야.

B :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 아버지가 나에 대해 실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 dread : 걱정하다, 염려하다

* wreck : 차사고

* disappoint : 실망하다

오하요우 니혼고 <1183>

そうですね。

그렇죠

A : インフルエンザが流行(はや)っているようですね。

B :ええ、私も親(おや)の言(い)うことを聞(き)かないで、薄着(うすぎ)して出掛(でか)けて風邪(かぜ)を引(ひ)いてしまいました。

A : じゃ、引き始(はじ)めに薬(くすり)を飲(の)まなくちゃだめですよ。

B : そうですね。早速(さっそく)病院(びょういん)へ行(い)って来(き)ます。

A :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B : 네, 나도 부모님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얇게 입고 다니다 감기에 걸려 버렸어요.

A : 그럼, 조기에 약을 먹어야 해요.

B : 그렇죠. 즉시 병원에 다녀오겠습니다.

インフルエンザ : 유행성 감기, 독감

親(おや) : 부모

薄着(うすぎ) : (추운데) 옷을 얇게 입다

니하오 쟁구워 <260>

我去市場买了吃的。

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샀다

A: 你去哪兒了?

ni qù nǎr le

哪里去了呢

B: 我去市場买了吃的。

wǒ qù shìchǎng mǎi le chī de

我去了市场买了吃的

A: 你买什么了?

nǐ mǎi shénme le

你买了什么

B: 我买了鱼, 肉, 和青菜。

wǒ mǎi le yú ròu hé qīngcài

我买了鱼, 肉, 和青菜

A: 你买了什么?

B: 市场에 가서 먹을 것을 샀습니다.

A: 무엇을 샀습니까?

B: 생선과 고기 그리고 새소를 샀습니다.

市場 [shìchǎng]

시장

青菜 [qīngcài]

배추